

정책연구용역 요약보고서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전략 연구

Export Strategy of Landscaping Tree and Bonsai to China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산림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 전략 연구」 과제의 요약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민 경 택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변 승 연 (연구원)

연구참여자: 은 중 호 (연구원)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제2장 우리나라 조경수 및 분재산업 현황

1. 조경수 생산 현황과 수출가능성 3
2. 분재 생산현황과 수출가능성 8
3.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입 동향 12

제3장 중국의 조경수·분재 시장 현황

1. 조경수 시장동향 16
2. 분재 시장동향 18
3. 조경수·분재의 수출입 22
4. 중국의 식물 통관 관련 제도 25
5. 대중국 조경수·분재 수출 가능성 31

제4장 외국의 수목 수출 관련 사례

1. 일본의 수목 수출사례와 지원제도 33
2. 네덜란드의 수목 수출입과 지원제도 38

제5장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과 실천과제

1. 조경수·분재 수출의 여건분석(SWOT) 41
2.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 42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조경수 생산도 함께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재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분재에 대한 국내 수요의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용 고급 분재 소비 감소 등 분재업계는 소비 시장 위축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조경수와 분재의 국내 수요 부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수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조경수와 분재 산업은 내수시장의 성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술발전에서도 뒤처졌다. 수출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남과 동시에 국제 시장을 겨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조경수·분재 산업의 기술발전 나아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조경수와 분재는 관리에 따라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되며, 예술성을 융복합하는 문화상품으로서 가치가 높다.
- 중국은 조경수와 분재 시장이 성장하는 나라이다.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도시계획이 진행되며, 고급 주택 시장에서 조경수 수요는 증가 추세이다. 부유층의 주택 또는 민간건물의 정원용 조경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일본산 나한송과 스페인산 올리브나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을 수입한다. 또, 중국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분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연구는 중국의 조경수 및 분재 시장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조경수 및 분재를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산림청은 ‘2016년 임산물 수출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출목표를 5억 달러로 제시하고,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범위와 방법

- 기초 통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 잠재력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일부 조경수와 분재를 중국에 수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기존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는 장애요인을 파악하였다.
- 조경수와 분재의 잠재 수출대상국은 중국이다. KOTRA 해외지사(다롄, 상하이, 베이징, 천진)에 기초자료 조사를 의뢰하였고 출장 조사에서 업계 관계자를 면담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 외국의 식물 수출 경험과 관련 지원제도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중국으로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은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네덜란드는 유럽 식물 유통의 중심지인데, 이들 사례를 참조한다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식물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
- 조사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조경수 및 분재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생산·유통, 홍보, 기술개발, 문화구축의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제 2 장

우리나라 조경수 및 분재산업 현황

1. 조경수 생산 현황과 수출가능성

1.1. 조경수 생산현황

- 우리나라 조경수 생산은 1970년대 크게 성장하였는데, 경제개발에 따른 건설공사가 활발하고 유적지 복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 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조경에 대한 도시민 관심 증가 등으로 조경수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 그러나 조경수 생산은 아직 1970년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조경수는 전문 생산업체와 부업 농가에서 생산하는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고 인기 수종 위주로 재배하고 있다.
 -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컨테이너 재배 등의 기술은 아직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고 정식 전정과 병해충 방제 등 재배기술도 미흡하다.
- 조경수 생산의 자세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연도별 생산량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 조경수 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42,661천 본에서 2009년 82,563천 본으로 약

표 2-1. 연도별 조경수 생산 및 생산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량 (천 본)	47,127	48,948	53,455	52,789	82,563	79,434	81,847	80,453	86,724	50,319	78,462
생산액 (억 원)	7,257	7,835	7,239	7,886	7,675	6,976	7,105	6,120	7,157	5,920	6,769

자료: 산림청(2015). 임업통계연보.

- 1.9배 증가하였다. 2009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생산액은 7,676 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 2010년 이후 조경수 생산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조경수 생산은 건설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새로운 건설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경수 생산도 과거와 같이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농림어업총조사’에서 공표하는 조경수 재배임가수와 재배면적은 <표 2-2>와 같다. 연도별 조경수 재배임가수와 재배면적은 2010년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으며, 1인당 재배면적은 1ha 정도에 머물고 있다.
- 소규모 재배 임가가 여전히 많으며 겸업으로 조경수를 재배하는 임가의 비중이 90%에 이른다.
-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에서 나타난 조경수 재배자의 수종별 재배 비율은 <그림 2-1>와 같다. 상록 교목류에서는 소나무, 주목, 향나무, 동백나무, 잣나무를 주로 재배하고, 낙엽교목류에서는 느티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벗나무, 산수유 등을 많이 재배

표 2-2. 연도별 조경수 재배 임가 및 재배면적

구분	연도		
	2005	2010	2015
재배임가(호)	7,696	12,002	9,070
전업 (비중,%)	119 (14.5)	1,137 (9.5)	994 (11.0)
겸업 (비중,%)	6,577 (85.5)	10,865 (90.5)	8,076 (89.0)
재배면적(ha)	n.a.	12,399	9,670
1인당 재배면적(ha)	n.a.	1.03	1.07

자료: 임업통계연보(2016). 농림어업총조사(공표주기 5년).

그림 2-1. 주요 조경수의 재배수종 비율

2010년 재배수종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상록교목류	소나무(49.1%)	주목(24.0%)	향나무(12.2%)	갯나무(6.5%)	반송(5.0%)
낙엽교목류	단풍나무(31.3%)	벚나무(19.5%)	느티나무(17.0%)	이팝나무(10.1%)	은행나무(5.8%)
관목만경류	철쭉(21.1%)	조팝나무(3.0%)	개나리(2.6%)	참빗살나무(2.2%)	병꽃나무(2.1%)

2015년 재배수종(노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상록교목류	소나무(68.4%)	주목(25.7%)	향나무(8.1%)	동백나무(6.4%)	갯나무(5.3%)
낙엽교목류	느티나무(26.6%)	이팝나무(24.5%)	배롱나무(22.6%)	벚나무(22.3%)	산수유(12.8%)
관목만경류	철쭉(49.2%)	회양목(19.6%)	영산홍(12.8%)	목서류(6.9%)	조팝나무(6.9%)

2015년 재배수종(시설)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상록교목류	소나무(41.0%)	주목(29.8%)	갯나무(27.0%)	동백나무(19.5%)	황철나무(15.2%)
낙엽교목류	벚나무(37.9%)	단풍나무(31.0%)	목련(12.4%)	백목련(12.4%)	왕버들(12.4%)
관목만경류	철쭉(74.2%)	산철(7.7%)	회양목(7.4%)	미스김라일락(8.0%)	목서류(7.0%)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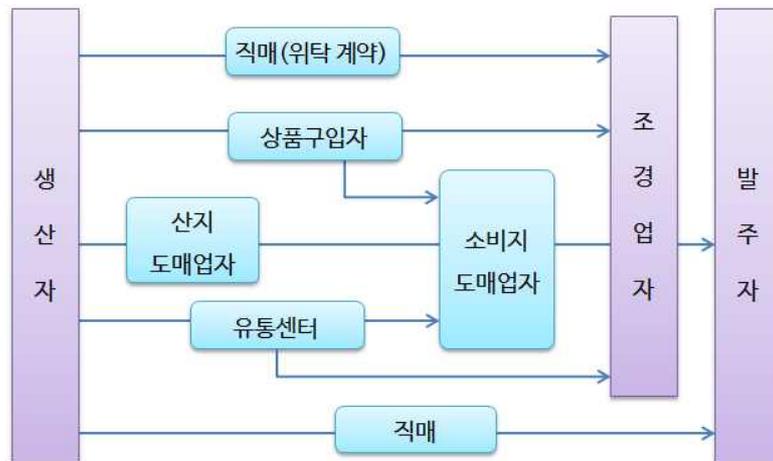
한다. 소나무의 비중이 매우 크다. 또, 관목류에서는 철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외에 회양목, 영산홍, 목서류, 조팝나무가 있다.

- 조경수의 중국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출할 수 있는 수종은 주목,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의 대형 특수목인데 이들의 비중이 높지 않다.
- 위 통계는 본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묘목과 성목으로 구분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형 특수목 자원의 통계가 없어 수출 잠재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1.2. 유통

- 조경수 유통의 일반 경로는 <그림 2-2>와 같다. 조경에 쓰이는 수종과 규격 등은 조경설계에 나타난다. 조경수 유통은 조경공사 업체의 주문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지 도매업자가 조경업자 주문을 받아 수량 확보에 나선다. 소비지 도매업자도 대부분 생산을 겸업하므로 자가생산품을 우선 조달하겠지만 수량이 부족하면 산지도매

그림 2-2. 조경수 유통경로



자료: 산림청(2007)

업자(생산겸업)와 생산자에게 조달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주문자에게 보고한다. 수집비용을 반영하여 견적을 제시하고 조경업자가 수용하면 발주한다. 수집한 조경수를 검수하여 조경업자에게 납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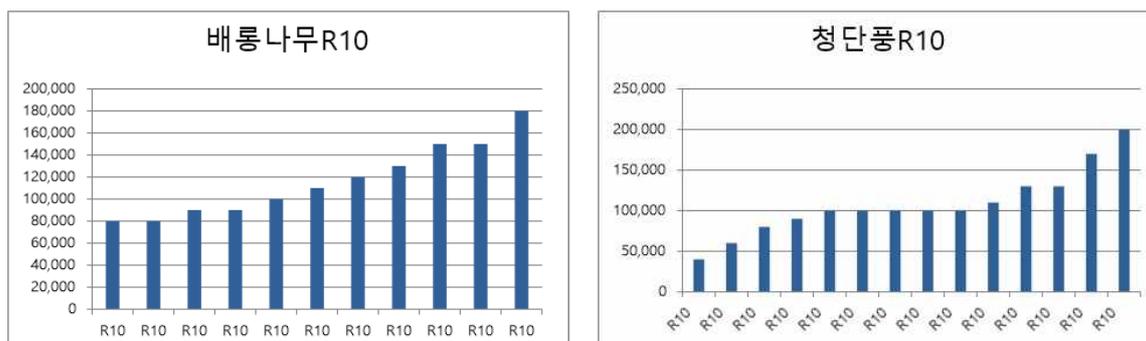
- 중간 도매업자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생산자가 조경업자 또는 발주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있으며, 유통센터를 거쳐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방식도 있다.

1.3. 가격

-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규격은 직경 15~20cm 이상의 대형 특수목이다. 부유층 주택 또는 민간건물 정원 조성에 사용할 나무들이기 때문이다. 대형 특수목의 가격은 별도로 나타나지 않고 당사자 교섭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 특수목 가격도 수형과 상태에 따라 편차가 커진다. 그럼에도 <그림 2-3>에 나타난 가격들이 수출하기에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¹

¹ 중국 바이어 면담에서 흉고직경 15cm 정도의 단풍나무 가격이 15만 원이라고 제시하였을 때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음.

그림 2-3. 조경수 거래가격



주: 수형 A급의 작업상차가를 기준으로 함.
 자료: 트리디비(<http://treedb.co.kr/>)

1.4. 수출가능성

- 우리나라의 주목, 단풍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 등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수종이다. 또,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규격은 대형 특수목이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 바이어는 30점 이상 규격의 단풍나무와 배롱나무 구매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대형 특수목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생산자가 많지 않아 국내에 어느 정도 상품이 존재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소량이라도 대형 특수목 자원을 보유한 생산자는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다수 생산자의 협력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 생산·유통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 국내 조경수 생산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나무를 다듬어 고급 조경수를 생산하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 조경수 재배업이 주로 평지보다 경사지에 위치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국내 조경수 생산업체가 내수 시장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시점에 수출을 도모하면서 국내 조경수 생산업을 선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분재 생산현황과 수출가능성

2.1. 생산 현황

- 우리나라 분재 생산액은 2005년 300억 원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100억 원 수준으로 위축되었다가 2015년에 210억 원 수준으로 회복하였다<표 2-3>. 추세를 살펴보면 분재 생산업은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 분재 생산업이 위축하는 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경기 침체에 따라 분재 수요가 감소하였고 화훼와 화분식물 등에서 외국 식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 분재를 가꾸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바쁜 현대인의 성미와 부합하지 않아 분재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분재가 지나치게 고급 취미로 인식되어 대중화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으로 선물용 고급 분재시장이 위축되어 분재 생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분재 수요 침체에 더하여 생산자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에 따라 분재생산자의 폐업이나 업종 전환 등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산림청의 임업경영실태조사(2016)를 보면 2015년 한해 분재를 재배한 실적이 있는 임가는 47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분재생산자의 평균 재배본수는 12,552본이다<그림 2-4>.

표 2-3. 연도별 분재 생산 및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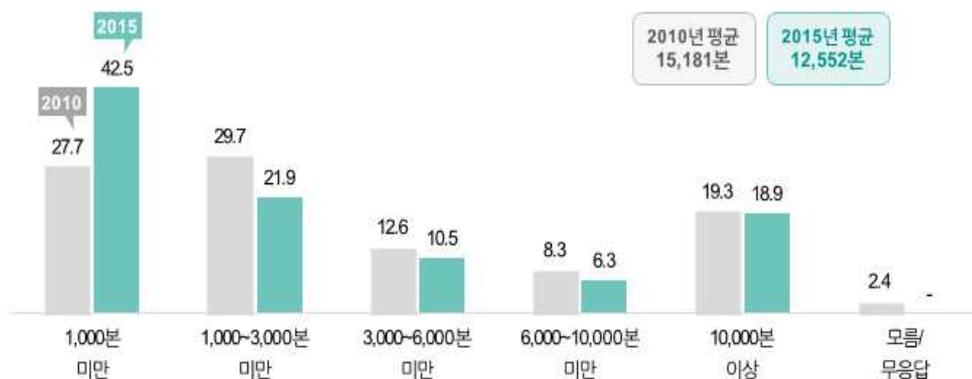
단위: 천 본, 백만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분재 소재	수량	1,156	1,004	1,299	1,279	2,409	1,102	891	1,308	431	378
	금액	14,595	13,864	20,112	18,892	26,476	20,155	24,407	18,598	4,607	11,228
분재 완재	수량	295	290	234	238	192	215	182	96	94	201
	금액	14,013	15,315	15,934	9,749	9,729	10,671	10,564	4,252	5,831	10,027

자료: 임업통계연보.

그림 2-4. 분재생산자의 재배본수 분포

단위: %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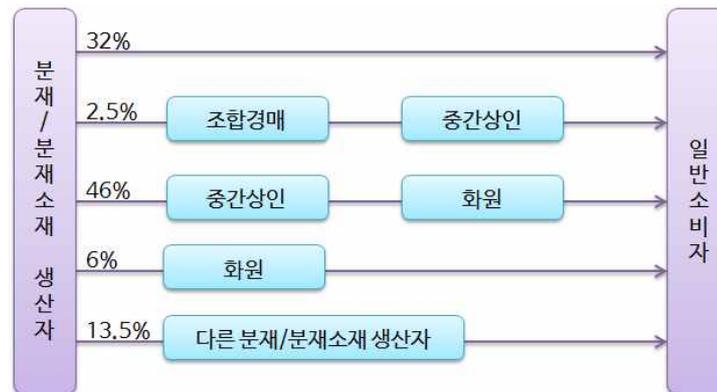
- 생산자의 42.5%가 1천 본 미만 재배규모에 속하며, 1만 본 이상의 재배규모를 가진 생산자는 18.9%이다.
 - 평균 재배면적은 4,098㎡인데, 생산자의 47.0%가 1,655㎡ 미만의 재배규모에 속하며 20,178㎡ 이상 재배규모의 생산자는 2.3%에 불과하다. 대부분 생산자들의 재배규모가 크기 않기 때문에 전업 분재생산자는 28.1%로 나타났다.
-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의 수종별 분재·분재소재 생산본수 분포는 <표 2-4>와 같다.
- 가장 많은 분재 수종은 소나무이며 그 다음이 소사나무, 모과나무, 명자나무, 철쭉이다. 상위 5개 수종이 45.7%를 차지하지만 3위 이하 수종의 비중이 대체로 5% 정도에 머물러 다양한 수종이 분재소재로 재배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 분재는 수령과 수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수령에 따른 분포가 나타나지 않아 어느 정도 수출가능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표 2-4. 분재 재배 수종의 분포

	1위	2위	3위	4위	5위
2010년	소나무 (17.1%)	소사나무 (11.7%)	단풍나무 (6.2%)	모과나무 (5.8%)	철쭉 (5.5%)
2015년	소나무 (18.0%)	소사나무 (9.1%)	모과나무 (7.0%)	명자나무 (5.8%)	철쭉 (5.8%)

자료: 2015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

그림 2-5. 분재·분재소재의 주요 유통경로



자료: 산림청(2007)

2.2. 유통

- 분재 유통은 애호가 중심의 전통 분재와 대중용의 소분재로 나뉜다. 분재의 유통경로는 크게 5가지로 나타난다<그림 2-5>.
 -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중간상인에 의한 거래(46%)이며, 소비자 직거래도 약 32%를 차지한다. 분재 소재를 생산하여 다른 분재생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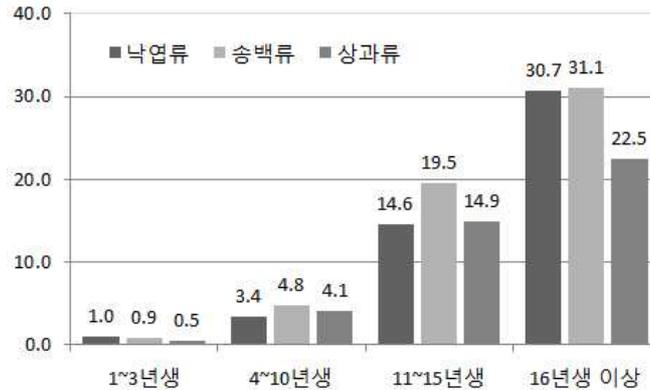
2.3. 가격

- 임업경영실태조사(2016)에서 분재 재배업 임가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바 있는데, 수령이 높을수록 판매가격이 크게 높아진다<그림 2-6>. 어느 정도 수령의 분재를 수출할 것인가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다.
 - 수출 분재의 가격을 평가하기 용이하지 않지만 중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

2.4. 수출가능성

- 국내 생산하는 분재에서 소나무 분재가 가장 많지만 중국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모과

그림 2-6. 분재 재배자의 수령별 분재 판매가격
단위: 만 원/본



자료: 임업경영실태조사(2016)

나무, 소사나무 분재도 많이 있다. 다만 분재 수령에 대한 통계가 없어 어느 정도 수량의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분재업계에 따르면 모과나무, 피라칸사, 낙상홍 등 중국에서 선호도 높은 고급분재는 다수 있다고 한다.

- 중국의 분재 애호가들도 한국 분재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자원은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재 생산의 규모가 영세하여 생산기반이 충분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만 중국으로 분재를 수출하는데 흠만 제거하면 되므로 대규모의 격리재배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여러 재배자에게서 수집한다면 수출 물량을 갖추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분재는 흠 없이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역에 대응하는 것도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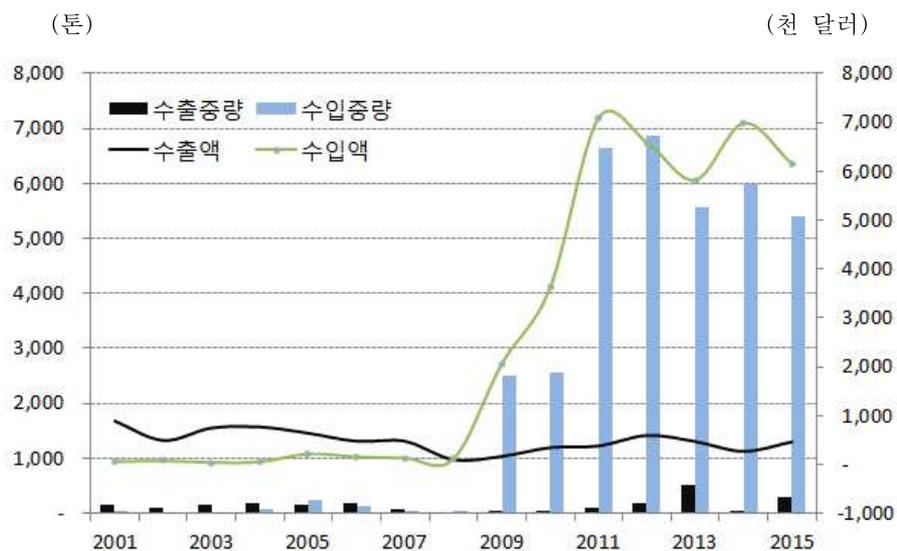
○관건이 되는 것은 상품성이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수형과 수령을 갖춘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배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흔하지 않는 수종으로 오랜 시간 공들여 멋진 수형을 갖춘 분재 작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조형 기술을 과시하면서 한국적인 미(美)를 표현한 분재 작품이라면 그 가치가 배가될 것이다.

3.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입 동향

3.1. 수출입 동향

- 조경수와 분재는 그 형태가 다양하고 수종도 다양하여 이를 하나의 HS 코드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대형 조경수와 소형 분재도 구분하기 어렵고 수종에 대한 정보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 <그림 2-3>는 2001년 이후 산림수목 수출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산림수목의 수입액은 2009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매년 600만 달러 이상에 이르지만 산림수목의 수출은 5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분재용 비중이 50% 이상으로 보인다.
 - 수출입 되는 식물의 종류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수출입 식물이 산

그림 2-3. 산림수목의 수출입 동향



주: HS 코드 0602.902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림수의 기타(0602.902099)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종보다는 다소 특이한 수종이 수출입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수입되는 산림수목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어온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목 수입액의 70%를 차지한다.
 - 수목 수출에서는 대만의 비중이 크다. 2013년 중국으로 수목 수출이 있었지만 2015년에는 전혀 없다. 기타 유럽 국가와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동남아 또는 중앙아시아에도 일부 수목 수출이 진행된 바 있지만 그 수량과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 일부 선구적인 분재 생산자들의 노력으로 일부 분재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베트남 등으로 수출된다. 직접 중국으로 수출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베트남이나 대만 등으로 수출되는 분재가 우회하여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주요 대상국별 수목 수출입 현황

구분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수량 (톤)	금액 (천 달러)	수량 (톤)	금액 (천 달러)	수량 (톤)	금액 (천 달러)
수출	전 체	512	470	51	270	284	466
	대만	220	78	-	-	195	157
	네덜란드	6	41	-	-	16	112
	스페인	14	78	6	43	7	59
	독일	10	76	11	59	2	22
	이탈리아	-	-	10	65	-	-
	카자흐	-	-	-	-	59	41
	중국	261	196	14	31	-	-
	기타	1	1	10	72	5	75
수입	전 체	5,572	5,821	5,980	6,984	5,398	6,152
	중국	4,041	4,468	4,532	5,611	3,561	4,303
	인도네시아	874	410	1,082	670	1,284	830
	코스타리카	94	243	50	203	111	360
	대만	302	232	188	147	230	197
	일본	1	20	20	154	2	123
	기타	260	448	108	199	210	339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주: HS CODE 기타의 산림수 0602.9020

3.3. 수출의 애로사항

3.3.1. 조경수

- 수출시기의 제약이다. 주목의 생육 휴면기인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작업하므로 주목 수출이 가능한 기간은 3개월 이하이다.
- 검역조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뿌리의 흙을 완전 제거하기 위해 털고, 세척하고 피트모스로 인공토양을 만들어 포장하는 과정에서 뿌리 손상이 커 이식후 활착률이 떨어졌다.
 - 식물성장에 유리한 무균 인공토양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 높은 부대비용이다. 나무 구입비용에 비하여 작업비와 운송비 등 부대비용 지출이 나무 가격의 2배 이상이 되었다.
- 정부 지원사업의 홍보 부족이다. 수출과정에서 여러 유관기관(산림조합, 검역본부 등)을 통했음에도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 조경수 수출작업을 전담할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집하장을 형성하여 흙의 제거부터 인공토양 이식 등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고, 현지에 이식할 때도 현지토양의 특성을 파악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전수함으로써 활착률 제고에 도움을 줄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

3.3.2. 분재

- 분재의 경우 흙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등 진행 과정이 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문 재배시설이 필요하다. 재배 단계부터 수태 혹은 인공토양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전문 재배 시설이 필요하다.
 - 미리 콘크리트로 만든 재배 단지에서 60cm이상 높은 곳에 보관하며 재배해야 한다.

- 물류비 보조, 바이어 초청 등의 지원보다는 실제 수출이 가능한 업체 또는 수출에 의욕적인 업체를 선정하여 서류 준비부터 수출까지 전폭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 3 장

중국의 조경수·분재 시장 현황

1. 조경수 시장동향

1.1. 조경수 시장동향과 유통

- 베이징시는 2020년까지 녹지 면적은 101.96만ha에서 104.01만ha로 증가시키고자 하는데 이 가운데 산림은 64.32만ha에서 73.93만ha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또, 도심 녹지율은 2020년 48%로, 중점 공익 녹지율은 44.3%로, 산지 산림 건강비율은 60%까지 증가시키려 하는 녹지화 목표 수치를 제시하였다<표 3-1>.
 - 2016년 베이징의 산림녹화의무는 16만 묘, 8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 계획은 상반기에 80%를 달성하였다.
- 다롄 시 정부는 이미 중점 녹화 공정을 확정했다. 뉴타운과 중심지 등 중점구역에 대한 생태경관녹화, 살기에 적합한 시골 마을과 도로에 대한 녹화공정, 황산조림, 경제림건설, 삼림보육, 바위생태 관리 등의 공정이 있다.
 - 조림 녹화에 대한 필요한 자금은 정부투자, 기업투입, 사회노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마련하며, 올해 3.5억 위안을 조림녹화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 도시녹화, 주택정원 조성 등 조경수 시장은 성장 추세이다.

표 3-1. 베이징시 2020년까지의 녹지화 목표 지수

단위: 만ha, %

항목	2009년	2020년
전체 녹지 면적	101.96	104.01
산림 면적	64.32	73.93
도심 녹지율	45.0	48.0
중점 공익 녹지율	32.4	44.3
산지 삼림 건강비율	30.0	60.0

자료: 베이징시 원림녹화국(北京市園林綠化局),
베이징시 계획연구회(北京市規劃委員會)

- 중국에서 조경수가 유통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이다. 생산지에서 소비자로 바로 유통되는 경우, 생산지에서 도/소매업자를 거쳐 판매되는 경우, 생산지에서 도/소매업자를 거쳐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경우, 생산지에서 바로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조경수 전문도매시장이 다수 형성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 수입 조경수는 조경 시공업체들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문 수입업체에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소규모 업체들이 수입허가증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중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수목 거래도 활발하다는 것이 특이하다. 다수의 조경수 생산자들이 녹화수종 또는 정원수를 사진과 함께 수령, 수고, 가격 등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형 업체들도 있지만 소규모 업체들이 많다.

1.2. 조경수 선호

- 중국에서 정원수로 선호하는 조경수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예쁘게 잘 다듬어진 나무,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처럼 화려한 꽃이 피는 나무, 또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목을 선호한다. 흰 꽃은 죽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 다양한 수목 중 특히 ‘여정실’, ‘단풍나무’는 붉은 색을 띠는 나무로 중국에서 부(富)와 행운을 상징하여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수종이다. 또한 직경 20cm 이상인 회양목, 비자나무, 홍화계목 등 크고 특이한 수형을 가진 나무를 선호한다.

- 외국에서 수입하는 나무들도 독특한 수형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없는 수종을 선호하는데, 일본 나한송, 스페인 올리브나무, 이태리 감탕나무류 등이 대표적이다. 또는 오랜 시간을 들여 잘 다듬고 가꾸어 멋진 수형을 갖춘 나무들을 원한다. 100년 이상 수령의 철쭉 등이다.
- 중국에서 수목 생산자들이 고령화하고 후계자가 줄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다양하고 예쁜 수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젊은 전문가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조경수를 수입할 때 잘 다듬어지고, 특이한 수형의 나무를 원한다.

2. 분재 시장동향

2.1.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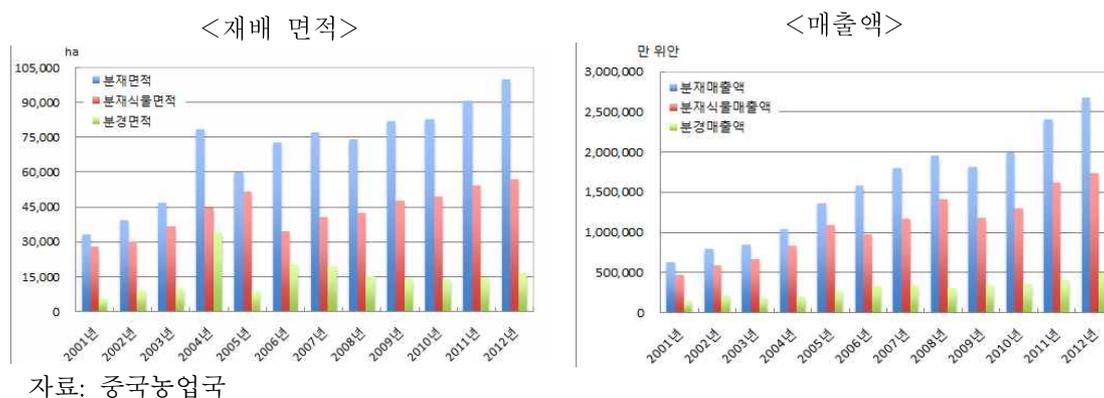
- 중국 화훼재배 면적은 2013년 122.71만 ha이며, 2012년(112.03만 ha)보다 9.54% 증가하였다. 판매액은 1,288.11억 위안으로 2012년(1,207.71억 위안)보다 6.66% 증가하였다. 증가량은 주로 식약용 식물, 관상용 묘목, 분재식물 등에서 발생하였다. 화훼 수출액도 증가하여 2013년 6.46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는 생절화류 비중이 크다. 2014년 중국 화훼 판매액은 1,404.04억 위안에 달하였다.

표 3-2. 중국 화훼통계(2012년)

항목	면적(ha)	매출액(만 위안)	수출(만 달러)
화훼(Total)	1,120,276 (100.0%)	12,077,147 (100.0%)	53,265 (100.0%)
1. 절화	59,382 (5.3%)	1,354,098 (11.2%)	27,907 (52.4%)
2. 분재	99,775 (8.9%)	2,677,1679 (22.2%)	10,526 (19.8%)
3. 관상묘목	637,723 (56.9%)	6,159,261 (51.0%)	4,817 (9.0%)
4. 식용·약용 화훼	205,770 (18.4%)	1,018,132 (8.4%)	187 (0.4%)
5. 공업용 화훼	58,816 (5.3%)	290,923 (2.4%)	4,490 (8.4%)
6. 화훼잔디	38,443 (3.4%)	220,737 (1.8%)	0 (0.0%)
7. 화훼종자	5,112 (0.5%)	33,877 (0.3%)	291 (0.6%)
8. 화훼묘목	10,723 (1.0%)	224,802 (1.9%)	3,671 (6.9%)
9. 화훼종구	4,471 (0.4%)	83,351 (0.7%)	107 (0.2%)
10. 건조화	62 (0.0%)	14,798 (0.1%)	1,269 (2.4%)

자료: 중국농업국

그림 3-1. 분재 재배 면적 및 매출액 변화 추이, 2001-2012



- 2012년 분재의 재배면적은 99,775.11ha, 전체 화훼 재배면적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 분재의 매출액은 26,677,167만 위안으로 전체의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분화 재배면적은 전체 분재식물 재배면적의 57.2%를 차지하였으며, 분경과 화단식물이 각각 16.3%, 26.5%로 나타났다. 년도에 따라 비율이 변동하였으나,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
 - <그림 3-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분재 재배면적과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 2012년 중국 분경 매출량은 57,671만 분이며, 매출액은 50.2억 위안이다. 2012년 분재 매출액은 267.7억 위안이며, 2011년에 비해 11.1% 증가하였다. 분재 매출량은 61.3만 분으로 2011년보다 23.5% 증가하였다. 분재식물의 매출액은 173.38억 위안이며, 분재류 전체의 64.8%를 차지하였다.

2.2. 유통구조

- 분재는 화훼 유통경로를 따라 유통되는데, 화훼 유통경로는 크게 다음 5가지로 구분된다(鄒美霞, 2010).
 - 첫째, 「생산자→소비자」 직거래이다. 보통 도시 근교의 화훼 생산자가 해당되며 생산자가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다. 애호가들이 취미단체(동호회)를 통하여 직접 분경원에 가서 구매하거나 인터넷의

분경사진을 보고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 둘째, 「생산자→소매업체→소비자」 경로인데, 꽃집이나 가판(좌판) 등이 소매업체에 해당된다. 중간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운 경우에 적용된다. 중저가품의 유통경로이다.
- 셋째, 「생산자→도매업체→소매업체→소비자」인데, 생산 규모가 크고 소비지와 거리가 먼 경우에 이러한 유통방식을 선호한다. 저가품의 유통경로이다.
- 넷째, 「생산자→대리업체→소매업체→소비자」이다. 생산자가 대리업체에게 위탁 판매하는 방식이다. 수입품은 이러한 유통형태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다.
- 다섯째, 「생산자→대리업체→도매업체→소매업체→소비자」이다. 대리업체가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수출하는 경우 이 구조를 많이 따른다.

2.3. 소비동향

- 분재는 주로 50대 이상의 마니아 계층 소비와 명절(춘절 등) 선물용으로 판매된다. 최근 경제 성장의 정체와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三公消費 억제)으로 선물용 분재시장(고급 수목, 심비디움 등)은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 그러나 실내 인테리어 등 식물 소비의 대중적 인기는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이다.
 - 분재시장에서 고가의 선물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차(茶) 문화와 분재를 융복합하는 전시회 등 새로운 형태의 고가분재 수요가 형성되는 움직임도 발견된다. 이 수요층은 분재 마니아이므로 지출 수준도 높다. 진기하고 특이한 분재, 고급스럽고 예술성 높은 분재, 희귀한 수종의 분재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
-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분재 스타일은 주로 수목분재(樹木盆景), 수한분재(水旱盆景), 화초분재(花草盆景) 등이다.
 - 가장 선호하고 시장성이 좋은 수종은 소나무(해송)이며, 또한 매화, 난초, 은행나무, 느릅나무 등도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수종이다. 소비자들이 분재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품종과 외관(형식과 수형)이다.
 - 최근에는 중국식 복고 스타일의 분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한다. 복고식 스타일은 원근감과 고태미가 잘 드러나는 모양의 분재이다.

표 3-3. 산지별 분재의 장단점

한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산에 비하여 자연미는 있지만 마무리 작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산에 비하여 작품성이 우수하나 솔잎 길이가 약간 짧은 것으로 평가
일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임. 자연적인 멋보다 인공적임. •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음
중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재기술의 저하로 상품성 있는 상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평가임. • 강하면서 웅장함

자료: aT 출장조사결과

- 중국에서 수입 분재의 선호는 일본산이 가장 높으며, 한국산은 일본산보다 인지도가 낮다. 2012년까지 대만산(주로 중국거주 대만 바이어가 취급) 수입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족 바이어가 늘면서 일본산 수요가 많은 편이다.
- 수입산 분재에서 선호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 일본산 분재에는 소나무(松樹), 측백나무(栂樹), 단풍나무(楓樹) 등이고, 대만산에는 진백나무(眞栂), 나한송(羅漢松) 등이다. 한국산에는 적송(赤松), 진백나무(眞栂), 모과나무(木瓜), 주목나무(朱木) 등이다.
 -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소나무류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대만이나 홍콩, 베트남 등을 통해 일부 수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 분재에서 일본산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일본산 분재의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분재 생산의 공급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산 분재는 일본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나 중국산보다는 5~10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한다. 한국산 분재의 상품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분재 기술력이 아직 우위에 있어 품질경쟁력은 있지만, 중국의 분재 기술은 매우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분재는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
 - 애호가들은 한국산 분재가 일본산보다 자연미(일본산은 인공미가 강함)가 있다고 한다. 중국 분재가들은 한국산 분재에서 모과, 낙상홍, 향나무, 피라칸사스 등이 흥취가 있다고 말한다.
 - 한국산 분재는 일본산에 비해 품종이 다양한 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특히 마무

리 작업이 취약하다는 평가이다.

- 일본의 유럽시장에 대한 분재수출이 주춤하면서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 재배·유통의 생산성을 개선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3. 조경수·분재의 수출입

3.1. 수입 동향

- 중국의 수목류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지만 2010년부터 수입액이 크게 상승하였다<표 3-4>. 중국의 최근 5년 연도별 수목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64.0% 높아 수입증가가 가장 많았다.

표 3-4. 중국의 수목류 수출입 현황, 2001-2015

년도	수 출			수 입		
	수출량 (만 주)	수출액 (천 달러)	단가 (달러/주)	수입량 (만 주)	수입액 (천 달러)	단가 (달러/주)
2001년	29,279	7,495	0.03	471	2,852	0.61
2002년	25,015	11,315	0.05	529	5,647	1.07
2003년	26,442	14,070	0.05	368	9,651	2.62
2004년	16,338	21,035	0.13	177	7,336	4.14
2005년	18,833	24,350	0.13	106	5,534	5.21
2006년	17,599	26,784	0.15	514	831	0.16
2007년	21,325	30,785	0.14	54	766	1.43
2008년	12,012	30,922	0.26	78	624	0.80
2009년	23,130	51,932	0.22	60	1,804	2.98
2010년	19,598	56,377	0.29	259	8,223	3.18
2011년	13,331	46,995	0.35	222	21,512	9.70
2012년	11,192	52,549	0.47	147	22,714	15.42
2013년	12,535	76,673	0.61	334	37,251	11.14
2014년	33,866	192,197	0.57	91	43,448	47.82
2015년	119,319	69,373	0.06	168	45,673	27.16

주: HS CODE 기타의 산 식물 0602.9099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대만, 남아공,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이다. 중국의 수목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산 수목이다.
- 수입 수목 시장을 보면 나한송과 같은 일본 수종을 흔히 볼 수 있고, 동백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도 일본에서 많이 수입된다. 이는 일본의 수형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 높은 예술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일본식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일본 수목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일본에는 호경기에 식재한 나무들이 많은데 현재 일본 경제가 침체하면서 조경수 내수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본에서는 전문 수출업체들이 개별 농장을 찾아가 값싸게 내놓은 조경수를 수집·취합하여 중국으로 수출한다.

표 3-5. 중국의 주요 대상국별 수목류 수출입 현황

구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물량 (만 주)	금액 (천 달러)						
수출	전 체	11,192	52,549	12,535	76,673	33,866	192,197	119,319	69,373
	미얀마	-	-	-	-	12,700	127,000	-	-
	네덜란드	2,158	15,079	1,870	16,006	2,439	17,063	2,308	15,427
	한 국	964	14,742	1,693	14,595	1,328	13,742	4,872	11,663
	홍 콩	1,117	4,744	1,235	20,663	933	9,543	106,363	6,793
	싱가포르	234	1,550	241	3,555	303	3,196	335	4,729
	기 타	6,719	16,434	7,496	21,854	16,163	21,653	5,441	30,781
수입	전 체	147	22,714	334	37,251	91	43,448	168	45,673
	일 본	-	9,608	3.44	25,650	2	31,874	3	34,393
	대 만	110	6,978	93	6,359	-	3,525	22	2,200
	남아공	-	1,147	-	1,545	-	2,353	-	2,552
	우루과이	-	841	-	571	-	1,387	-	680
	네덜란드	11	193	18	273	17	377	68	1,551
	아르헨티나	-	-	-	108	-	1,222	-	-
	기 타	36	4,140	238	3,018	72	2,710	75	4,297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주: HS CODE 기타의 산 식물 0602.9099

3.2. 수출 동향

-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식물의 수출입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 2001년 수출량 29,279만 주, 수출액 750만 달러에서 2013년 12,535만 주, 7,667만 달러로 수출량은 줄었지만 수출액이 열 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미얀마, 네덜란드,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경수 및 분재 수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은 운난, 광둥, 푸젠, 저장, 장쑤 순이다.
- 한국으로 조경수 및 분재를 수출한 금액을 보면, 2012년 수출액이 1,474만 2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 수출액은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조경수 및 분재가 생산, 유통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 또한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액이 줄어드는 원인의 하나이다.
-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조경수 및 분재 수출액을 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금액보다 수출액이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출액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감소폭은 2014년도에 32.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중국의 수목 수출에서 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유럽으로 수출하는 양이 많다.

표 3-6. 중국 성별 최근 5년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운난	866	1,175	1,179	128,458	1,219
광둥	14,329	15,956	35,778	27,285	28,531
푸젠	9,531	11,412	11,224	9,975	8,091
저장	870	577	756	521	576
장쑤	-	-	76	35	292

자료: 한국무역협회

4. 중국의 식물 통관 관련 제도

4.1. 통관절차

- 흙을 포함하여 수입하는 수목은 지정된 해관의 지정 항구에 신고하여 수입검역 수속을 해야 한다. 수목 수입이 지정된 항구는 <표 3-7>와 같다.
- 통관할 때는 수하인이 비엘(B/L)을 갖고 직접 또는 대리업체를 통해 세관에 수입 신고해야 한다.
 - 구비서류에는 ①패킹 리스트(packing list), ②화물 명세서, ③영수증, ④계약서, ⑤수입 신고단이 있다. 대리업체를 통하는 경우 대리통관위탁서가 필요하다. 이외에 ⑥멸종위기품종 수출입 증명서/비멸종위기품종 수출입 증명서, ⑦식물수입허가서, ⑧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서가 필요하다.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되는 경우 ⑨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준비 서류와 함께 통관신고단을 접수한다.
- 식물의 통관절차는 주로 다음 절차를 거친다. 세관이 통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화물을 검사한다. 세금을 징수한 후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 감독 관리를 마무리하고 관련 서류에 통관 도장을 찍는다. 수입 화물의 수하인은 세관감독 관리 현장에서 화물을

표 3-7. 수목 수입 지정 해관 및 항구

지역	해관명	항구명
절강성	닝보 (宁波) 해관	①宁波北仑港
복건성	샤먼 (厦門) 해관	②厦門東渡港
광둥성	선전 (深圳) 해관	③沙頭角口岸, ④蛇口港
	포산 (佛山) 해관	⑤佛山南海港, ⑥順德勒流港
	관위 (番禺) 해관	⑦番禺蓮花山口岸
광서성	난닝 (南宁) 해관	⑧東興口岸
운남성	쿤밍 (昆明) 해관	⑨磨憨口岸

자료: 수입식물종묘 지정수입항구 조정에 관한 공고(2015년)

수령한다. 조경수와 분재는 <입경 동식물 검역심사명부>에 해당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경 동식물 검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 자체만이 아니라 식물성 유기비료, 식물성 폐기물, 식물제품 가공 후 생긴 자투리 및 기타 식물에 대한 해로운 생물을 모두 검역해야 한다.

- 조경수 또는 분재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먼저 중국 정부(중국 입업국)의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입실적이 없는 수종은 병해충위험도 해석이 필요하다. CITES 해당 수종이라면 관련 당국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국에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까다로운 검역조건이다. 우선 소나무, 흙, 모래, 점토 및 피트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수목을 수출할 때 뿌리를 감싸는 재배매질(피트모스, 마사, 수태 등)을 미리 중국 검역국에 보내 검역을 받아야 한다.
 - 수출하기 전에 흙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수송하여 이식하였을 때 고사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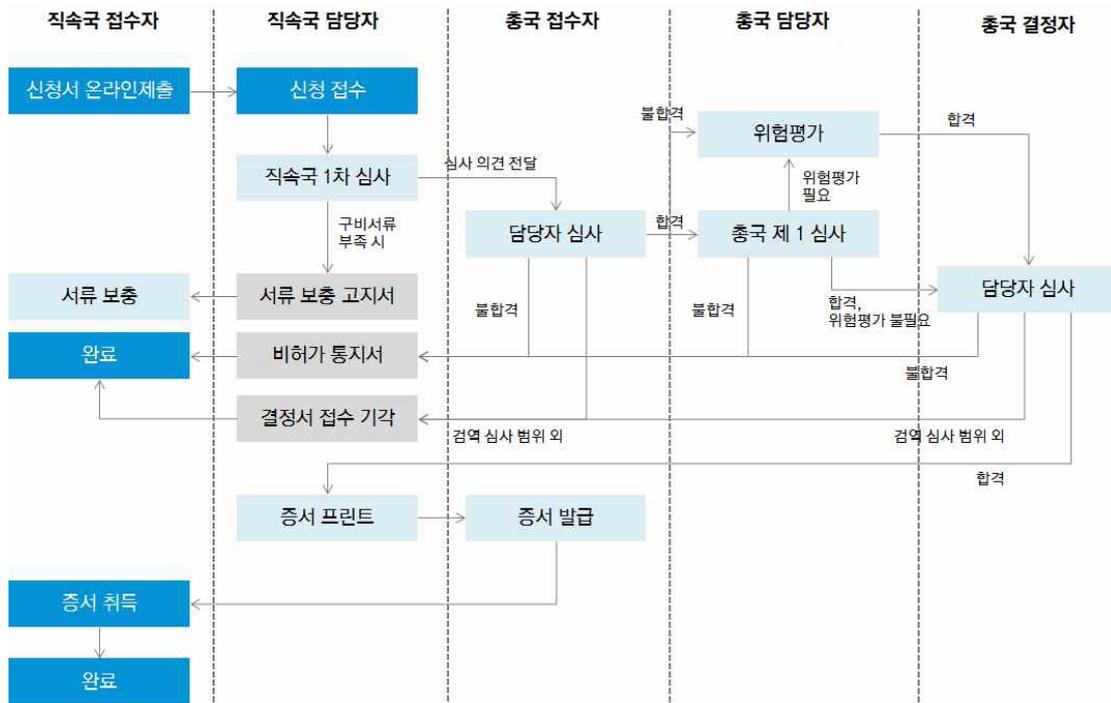
4.2. CITES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멸종위기종 야생 동식물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국 <멸종 위기종 동식물 수출입 관리 조례>, <멸종 위기종 동식물 국제무역 공약>에 따라 수출입하고자 하는 멸종 위기종 야생 동식물은 「수출입허가증명서」와 「물종(物种) 증명허가」를 받아야 한다.

4.3.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서

- 식물검역은 크게 「심사→등록→검역신고→항구검역→후속 관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식물이 재배된 매개체에 대한 검역 심사 수속을 밟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그림 3-2. 중국 식물검역허가증 심사 흐름도



자료: 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Service(www.ciqcid.com)

의 중국수출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검역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①수입식물검열검역허가증 등록 신청서, ②수입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기업코드 사본, ④중국 수출입기업 지역 허가증 또는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등기부 사본, ⑤기업법인 신청자(수입업자) 신분증 사본 등이다. 필요에 따라 한국 식물검역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류, 수입대리업자 승낙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수입묘목검역허가서 획득은 임업부 또는 농업부를 거쳐야 한다. 임업부는 해당 수목의 리스크 평가를 통해 수입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하면 《引進林木种子苗木及其它養殖材料檢疫審批單》를 발급한다. 임업부에서 수입임목종자경영허가증과 생산허가증을 획득하고 수입묘목격리재배단지 시설허가증을 획득하고 신청가능하다.

- 허가증 신청에 등록자본금 3,000만 위안이 필요하며 발급기간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첫 수입에서 수입량이 약 50주로 제한되고 일정기간 격리재배를 해야 한다.

표 3-8.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수입 금지 물품

식물명	지역	금지사유
옥수수종자	미국, 캐나다, 중미, 남미, 유고, 이탈리아, 폴란드, CIS	<i>Erwinia stewartii</i>
대두종자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유럽, 뉴질랜드	<i>Phytophthora megasperma</i>
감자괴경 (종자용)	미국, 캐나다, 유럽	Potato yellow dwarf virus, Potato mop-top virus <i>Globbdera rostochiensis</i> <i>Clobodlera Pallida</i> <i>Syhchytrium endobioticum</i>
느릅나무(<i>Ulmus spp.</i>) 묘목 및 삽수	미국, 캐나다, 유럽	<i>Ceratocystis ulmi</i>
소나무(<i>Pinus spp.</i>) 묘목 및 접수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마카오, 한국	<i>Bursaphenhus xylophilus</i> <i>Hemiberlesia pitysophila</i>
고무나무(<i>Hevea spp.</i>) 순, 묘목 및 종자	멕시코, 중남미	<i>Microcyclus ulei</i>
담배속(<i>Nicotiana spp.</i>) 번식재료	미얀마, 이란,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i>Peronospora hyoscyami</i>
식물병원체, 해충, 유해생 물체 및 기타 GMO 물질		中國進出境植物檢疫法제5조
토양		中國進出境植物檢疫法제5조

자료: 進境植物檢疫審批名錄

- 식물검역규정에서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한 품목은 식물병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흙,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하는데, <표 3-8>과 같다. 식물검역 조례에서 정한 수입금지 식물은 우편 및 휴대품으로도 수입할 수 없다.

- 즉, 우리나라 소나무는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그 사유는 소나무재선충의 침입 가능성 때문이다.

4.4. 식물재배매질 검역

- 중국은 토양(흙)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물을 수입할 때 별도의 재배매질을 이용하여야 하고, 그 수입매질도 심사비준 대상이다.

- 재배매질은 사용되는(즉 재배되는) 지역의 검험검역국, 예를 들면 상하이 항구/항만을 통한다면 상하이 검험검역국에 심사비준을 신청하여 접수한다.

4.5. 식물검역

- 중국에서 조경수 및 분재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 검역법, 식물검역 조례(국무원 농업행정부 조례)², 동식물제품검역법과 관련되며,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에서 발표한 수출입동식물제품검역심사(進境(過境)動植物及其產品檢疫審批)를 거쳐야 한다. 이 심사는 직속 검사검역국(檢驗檢疫局)에 전자문서 및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적용 범위에는 수입 동물, 활성 수정란, 싹 및 전염물질, 수출동물 등이 포함되며, 동식물 병원체, 해충 등 유해생물과 감염 식물, 동물의 시체 등 물질은 특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境動植物檢疫法)」과 「수출입식물과 동물제품 위험분석 관리규정(進境植物和植物產品風險分析管理規定)」 등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 식물번식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검역 심사 수속을 먼저 하고 무역 계약서에 검역 심사의 검역요구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 신청기업 혹은 대리인은 식물번식재료 입국 7일 전에 <입국 물품 검역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지정 검역기관에 보내 검역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식물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는 재배지의 농업부와 임업부³에서 식물검역 심사 비준을 신청 접수한 후 수입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심사비준서를 발급하게 된다.
 - 예를 들어 상하이 항구/항만을 통해 수입하고 기타 성시(省市)에서 재배할 경우 해당 성시의 검험검역국에 접수한 후 상하이 검험검역국에 관련 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² 수입금지품 목록, 식물유행병해충 목록, 식물유해병해충 부착식물 등의 처분기준, 검역수수료 등을 규정한 조례임.

³ 상하이 경우 우선 임업부에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증명서(准入證明 2의 심사비준서)를 발급함. 이때, 수입업체는 요구에 부합되는 자체 혹은 임대 재배지가 있어야 하며 재배지에서 수입 묘목을 격리하여 검역함(적게는 1주일, 많게는 1년~2년까지 격리).

- 검역관은 검역에 필요한 장소(창고, 재배지 등) 출입, 병해충 발생상황의 예찰, 조사 및 검역관리 감독을 하며, 검역물품의 운행일지, 운송송장, 계약서,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를 열람 및 복사, 발취할 수 있다.
 - 입국 식물번식재료 검역은 「증명서 심사→물품 증명서 검사→현장 검역→실험실 검역」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검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조경수 및 분재는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
-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수입목에 대한 격리검역을 수개월 실시하기 때문에 조경수와 분재 수입업체들은 격리검역포(隔離檢疫圃)를 가지고 있다. 수출목도 수입목과 마찬가지로 수출 전에 일정기간 격리재배를 실시하며, 격리재배 동안 검역소 공무원이 수시로 시설과 격리상황을 체크한다.
- 분재의 경우 격리재배할 때 땅에서 1m이상 위에 보관하며, 조경수에는 태그를 붙인다. 격리보관 장소는 정부가 지정한 곳을 선택하거나 수입자가 제공하는 격리지를 정부가 검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최종적으로 모든 검역 검사 결과, 수입식물 등에 국무원 농업행정부가 정한 식물 유해병해충(해충, 선충 등)⁴ 및 잡초, 상기 병해충 이외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으면 소독, 반송 또는 소각 조치를 취한다.
- 요약하면, 중국에서 모든 재배용 식물류는 중국 정부(중국 임업국, 검역기관)의 수입 허가증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수출검사에 합격한 다음 수출할 수 있다. 소나무, 흙, 모래, 점토 및 피트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토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수송에 별도의 재배매질을 사용한다면 매질의 샘플을 미리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실적이 없는 식물을 수입할 때는 병해충위험도 해석이 필요하다.

⁴ 해충은 Dacus속의 해충 및 26종의 해충을 의미하며, 선충 6종, 곰팡이 15종, 세균 3종, 바이러스 6종, 잡초 3종이 해당된다.

5. 대중국 조경수·분재 수출 가능성

5.1. 조경수

- 중국에서 도시녹화 조경수나 정원용 수목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 수요는 당분간 지속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조경수는 정원수가 될 것이다.
 - 조경수 수출에서 타깃으로 하는 수요처는 부유층의 정원이나 민간 건물의 정원 조성에 쓰이는 수목이다. 중국에서 정원수로 선호하는 것은 꽃이 붉거나 노랗고 수형이 좋은 대형 특수목이다. 또는 중국에 없는 수종이거나 수령이 많은 나무이거나 뛰어난 기술로 잘 다듬은 나무이다.
-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수종은 단풍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 주목, 향나무 등인데 이들 수종의 대형 특수목이다. 이들 수종은 빨리 자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소나무가 제외되고 1~2m 정도의 성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수 조경수 생산자의 재고를 처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 한국을 방문한 중국 바이어들도 배롱나무, 청단풍, 홍단풍 대형목을 구입하겠다고 의사를 보였다. 이들이 원하는 규격은 30점 이상의 대형목이다. 이런 수종의 대형 특수목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생산자는 없겠지만 소량으로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중국에 식물을 수출하려고 하면 중국 정부(임업국)의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다. 수출자가 수목을 가져다가 판매할 수 없다. 수목 수입허가증 취득이 용이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바이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한국 조경수 또는 분재에 관심있는 바이어가 일부 있으므로 바이어 관리를 잘 해야 한다.
- 조경수 수출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중국의 검역 조건이다. 중국은 흙의 반입을 금지하는데 수목 뿌리의 흙 제거를 위해 세척하는 과정에 뿌리가 손상되어 수목의 현지 활

착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수목 수출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 이에 대해서는 수출 수목을 피트모스에서 재배하여 뿌리 발생을 유도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수출 수목의 세척 후 뿌리 양생, 포장·적재, 수송과정의 온습도 관리 등 노하우 개발이 필요하다.
- 이처럼 중국 바이어가 원하는 조경수 자원(대형 특수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역에서 요구되는 장애를 극복한다면 조경수 수출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5.2. 분재

- 중국의 분재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인의 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여유를 찾는 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는 중국에서 일본산 분재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일본 분재업계에서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중국의 분재가들도 한국의 모과나무, 배롱나무, 피라칸사, 낙상홍 등에 대해 관심과 수입 의사를 보였다. 소품분재를 희망하는 바이어도 있고 1m 이하의 대분재를 희망하는 바이어도 있다. 소품분재는 일반대중용으로 판매되고 대분재는 전문가 또는 건물장식용이 될 것이다.
 - 다만 소분재는 중국에서도 이미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차별적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대분재라 하더라도 중국 또는 일본 분재와 차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
- 분재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독창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미(美)를 살려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에 없는, 우리 고유 수종을 분재 소재로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배가될 것이다.

제 4 장

외국의 수목 수출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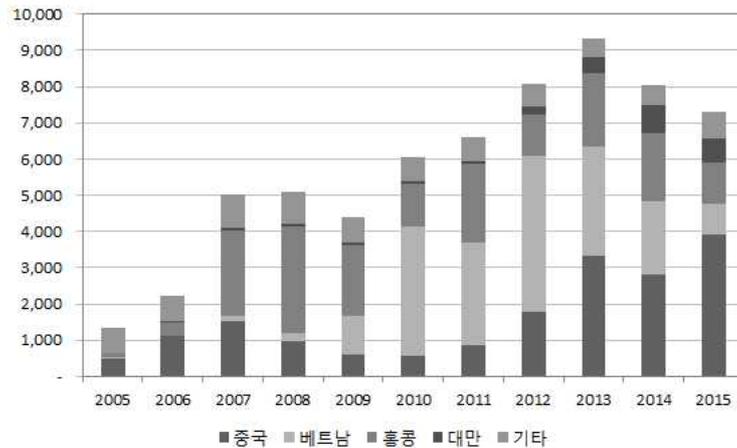
1. 일본의 수목 수출사례와 지원제도

1.1. 수출현황

- 지난 10년간 일본의 조경수·분재 수출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수출액은 93억 엔에 이르는데 조경수의 비중이 크다. 조경수·분재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베트남, 중국, 홍콩이다. 베트남과 홍콩으로 수출하는 수목들도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종에는 나한송, 오엽송, 흑송, 배롱나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나한송의 비중이 크다. 수목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나한송 등의 일부 자원의 고갈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관엽식물과 다육식물은 중국에서 많이 수입한다.
 - 2000년경에 처음 대만과 거래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목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만을 거쳐 수출하였다. 일부 수출업자들은 여전히 대만과 베트남을 통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에서 조경수 수출이 활성화된 것은 고급 조경수를 원하는 중국의 수요와 조경수 시장의 침체를 겪게 된 일본 생산자들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택의

그림 4-1. 일본의 조경수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엔



주: HS Code 060290

자료: 한국무역협회

정원에 나한송, 소나무 등 큰 나무들을 많이 심었지만 현재는 대형 수목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

- 수출 초기에는 경기부진과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 수목들을 싸게 넘기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중국 바이어 수가 많아졌고 수출전문업체들이 많아졌다.
- 옛날에는 중국의 최종 구매가격이 일본 판매가격의 10배가 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2~3배 정도라 한다. 일본산 조경수는 가격이 낮으면서 상품성이 뛰어나 중국 바이어의 선호가 높다.

1.2. 수출진흥 정책

- 수목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참고가 된다. 일본은 나한송을 비롯하여 조경수와 분재 수출이 많은 나라이다. 잘 다듬어 수형 좋은 나무들이 인기가 높다.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물 수출확대방안”에서도 수목을 중요 품목으로 다루며, 중국을 안정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 치바현은 나한송 수출이 활발한 지역인데, 폐업하는 생산자의 조경수 또는 농가주택

표 4-1. 수목 수출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주 체	역 할
수출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자는 JETRO를 통한 해외 바이어 초빙, 견본시장 출전, 국내 상담회 참가 등을 통해 나한송 이외의 식목 분재 등도 포함하여 새로운 수출품목을 홍보함 2017년 세계분재대회(사이타마)에서 PR을 협력
JE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시장에 일본 파빌리온 출전과 해외 바이어를 초빙한 국내상담회의 개최, 수출에 필요한 절차의 정보제공
전국꽃나무수출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역과 통관이 원활하지 않는 국가의 검역과 통관절차를 조사하고 대응방법 검토. 식목의 선충대책으로 재배단계부터 예방하는 기술의 정보 수집과 공유,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세미나 개최

자료: 농림수산성

의 정원수 등을 구입하여 수출 상품으로 가꾸어 수출한다. 이렇게 수출하는 나한송은 100~200년 이상의 나한송이다.

- 일본에서 수출하는 나한송은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데 예비검역에서 합격해야 한다. 수출 전에 CCIC Japan(중국검험인증)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포장(圃場) 검사를 하며, 때때로 중국 검역당국의 담당자가 방문하기도 한다.
- 일본은 분재 수출도 많다. 정교하게 잘 다듬은 분재들이 애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일본산 분재의 평가는 높지만 일본의 분재 공급여건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틈새를 한국산 분재가 파고들 수 있다.

1.3. 수출에 필요한 기술

1.3.1. 수출 수목의 전처리 작업

- 피트모스, 살선충제, 소석회, 부직포 자루(흙차단용)를 준비한다. 피트모스는 산성이므로 소석회로 pH를 조정한다. pH 4.5~5.5에서 식물특성에 따라 조정한다.
 - ①뿌리를 씻어 토양을 제거한다. ②부직포 자루에 나무를 담는다. ③새로운 배토(피

트모스)에 혼합할 살선충제를 준비한다. ④피트모스와 살선충제, 소석회를 혼합한다. ⑤지면에 구덩이를 파고 부직포 자루째 나무를 넣고 배토를 채워 입구를 묶는다. ⑥출하할 때 나무를 굴취하여 바깥의 배토를 털어낸다. ⑦부직포자루 바닥에 앞(④)에서 만든 피트모스를 깐다. ⑧나무를 자루에 담고 피트모스를 채워 넣는다. ⑨뿌리 포장을 한다.

- 부직포를 지면에 묻으면 급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지만 뿌리가 활착하기까지 관수를 하는 편이 좋다. 식물상태에 따라 3개월 정도면 새로운 뿌리가 나온다. 피트모스가 변성하면 수입국에서 토양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3.2. 수출 수목의 적재 방법

- ①큰 통에 살선충제(란네트 800배 희석액 등)를 준비한다. ②약제에 수목의 뿌리 부분을 담가 살균한다. 식물검역을 받은 다음 ③컨테이너를 수목 적재장소로 가져온다. ④컨테이너에 수목을 적재하고 ⑤그 위에 살충제를 살포한다. 배달 도중에 알이 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컨테이너를 닫고 출하 항구로 보낸다.
- 온도 설정에도 주의한다. 주목이나 팡팡나무류는 2℃ 정도, 나한송은 5℃ 정도가 적당하다.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오픈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다.

1.3.3. 수출 수목의 양생기술

- 수목을 안전하게 수출하기 위해 팡팡나무, 나한송, 주목, 오염송의 뿌리 세척과 이식 적기는 각각 4~7월, 3~7월, 3~5월, 3월이다. 뿌리를 씻고 피트모스에 이식한 다음, 차광율 60% 정도의 환경에서 2~3개월 양생한다.
- 뿌리를 세척하고 이식한 다음 차광에 더해 폴리스이트로 지상부를 덮어주면 가을 이후 새로 발생하는 잔뿌리가 증가하여 품질이 향상된다.
- 수목의 뿌리 세척은 수도보다 약간 높은 압력(2.5kgf/cm²)의 유수로 한다. 공압 세척은 뿌리를 다치게 하므로 피한다. 피복한 폴리스이트는 피복 1~2개월 지나면 조금씩 구멍을 내어 서서히 환경에 적응시킨다.
- 피트모스는 보수성이 좋으므로 과잉 관수를 하지 않는다. 반년 재배하면 뿌리가 완전히 재생하여 장기수송을 견딜 수 있다.

1.4. 시사점

- 일본은 중국과 EU 등으로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한 경험이 많다. 이 사례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 첫째, 좋은 수목이 있다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하는 나무들은 오랜 시간 키우고 다듬은 나무들인데 이에 대한 외국(중국)의 선호는 매우 높다. 일본은 우수한 수예 기술로 수목을 생산·수출하는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둘째, 수목 수출에는 다양한 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 수목 수출을 하려면 해외 바이어 상담, 박람회 참석 지원, 검역 대응 기술지원,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 셋째, 수목 수출에 필요한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참고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수출 전 수목의 세척 및 양생, 포장·적재, 수송과정 등에 대한 세밀한 노하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 넷째, 수목 검역협상의 필요이다. 일본은 중국과 검역 협상을 통해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흙의 부착을 인정받는 대신 중국 검사기관의 추가 검사를 받는다.
 - 다섯째, 홍보 활동이다. 박람회 참석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국제 수준과 경쟁하며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일본의 수목 수출을 위한 박람회 참가 활동을 참고해야 한다.
 - 여섯째, 수목 수출에는 식물과 정원문화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본의 수목 수출이 가능한 것은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고 외국 구매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네덜란드의 수목 수출입과 지원제도

2.1. 수목 수출입과 지원제도

- 네덜란드는 조경수 생산에서도 오랜 역사와 발전된 기술력을 자랑한다. 조경수 유통에서도 온라인 판매가 활발하고, 수십여 나라에 수출하면서 수목 수송과 포장 등 유통 전반에서 기술력과 관리능력이 발달하였다.
- EU에서 조경수(산림수) 수출입은 활발하지만 역내 무역의 비중이 크다. 2015년 기준 EU의 산림수 수출액은 1억 1,007만 유로, 수입액은 6,218만 유로에 이르지만, 수출액의 91.7%, 수입액의 99.5%를 역내 교역이 차지한다.

표 4-2. EU의 수목 수출입

구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물량 (톤)	금액 (천유로)	물량 (톤)	금액 (천유로)	물량 (톤)	금액 (천유로)	물량 (톤)	금액 (천유로)
수 출	역 내	91,042	118,415	67,650	101,697	71,501	111,706	67,765	100,929
	독일	16,386	35,021	13,612	28,830	13,414	30,982	10,316	22,315
	영국	31,793	20,577	19,265	18,901	22,366	19,513	8,666	21,955
	프랑스	14,937	25,528	11,480	22,200	11,294	21,403	11,434	20,890
	네덜란드	3,024	3,952	2,416	2,784	2,145	2,948	2,945	3,078
	역 외	4,133	10,553	3,287	7,512	2,865	8,539	4,087	9,145
	일본	1	14	-	4	-	-	-	-
	중국	3	21	-	-	1	19	1	1
	한국	-	-	-	-	-	-	1	8
수 입	역 내	58,736	80,534	44,905	66,659	62,276	63,973	66,527	61,875
	네덜란드	29,058	37,638	26,433	32,664	26,247	31,473	20,515	34,882
	독일	3,452	8,969	3,414	7,857	3,689	8,239	3,456	7,119
	이태리	9,130	7,611	4,611	6,809	3,293	4,677	3,589	4,726
	역 외	77	433	111	527	121	227	47	311
	일본	15	1	-	6	20	38	7	87
중국	-	-	3	34	3	51	6	79	

주: HSCode 0602.9041(forest trees)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이고, 수출액이 많은 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네덜란드가 수입하는 수목들은 대부분 다른 EU국가로 재수출된다.
- <표 4-2>은 EU의 수목 수출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역외 수출입에서 남미와 동남아 등 여러 나라와 교역하고 있지만 동북아 국가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EU 수출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주로 분재가 포함된다.
 - 유럽에서 고가 분재는 일본산, 저가 분재는 중국산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외에 식물과 식물제품을 판매하려는 네덜란드 수출업자들은 상대국의 식물검역조건, 재배자 권리, 관세, 그리고 무역장벽 등을 만나게 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관련 기업과 협의하여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서 부딪히는 무역장벽 극복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요한 수출국에서 무역장벽이 억제되거나 줄어들고 있다.

2.2. 시사점

- 네덜란드는 꽃과 수목의 생산과 유통에서 선진화된 나라이다. 수목 생산을 규모화·기계화하여 생산성이 높다. 마케팅에서 네덜란드산 식물을 앞에 세우기보다 식물의 가치와 효용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는 식물과 식물제품 수출에서 부딪히는 무역장벽 해결에 나선다. 수목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와 대학의 연구개발 노력이 활발한 것도 특징이다.
- 네덜란드 화훼와 수목 산업은 내수 시장이 작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찌감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출에 특화하여 발전하였다. 수출을 전제로 하면서 이에 대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언제든 어디든 안정된 품질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조경수·분재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수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수목 생산의 생산성 향상과 유통 현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 식물자원 뿐만 아니라 외국의 식물자원도 상품화하기 위한 품종 개발 및 개량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성공에는 농업기술개발

에 대한 인프라와 투자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 내수 시장을 더욱 키우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자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수목을 세계인도 좋아하기 때문이다. 식물 관련 박람회와 정원문화 구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생산자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식물과 식물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장벽 해월에 노력한다.

제5장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과 실천과제

1. 조경수·분재 수출의 여건분석(SWOT)

- 대중국 조경수·분재 수출의 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1>. 우리나라 조경수·분재 수출 여건을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고 대응과제를 탐색하였다.
- 조경수와 분재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여건 분석을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 중국의 조경수·분재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 산업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회 요인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해당 산업의 성쇠가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 중국의 조경수·분재 생산업계의 성장, 일본산과의 경쟁 등은 위협 요인이다. 차별화하여 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조경수와 분재의 수출 잠재력은 적지 않다. 중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 배롱나무, 단풍나무, 주목 대형 특수목에 관심을 보인다. 분재에서는 모과나무, 배롱나무, 피라칸사, 낙상홍 등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규격의 수종이 대량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생산자들이 수출가능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조경수와 분재를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는 데 장애요인도 있다. 국내 생산기반이 영세하다는 점, 해외 홍보가 미흡하여 중국 바이어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점, 까다로운 검역 조건에 대응하는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은 약점이다.

표 5-1.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의 여건(SWOT 분석)

외부환경 내부환경	<강 점(S)>	<약 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가능 자원 보유 재배기술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유통 기반 미흡 중국 바이어의 인식 부족 검역대응 기술부족
<기 회(O)>	<우선 수행과제>	<우선 보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 중국 바이어의 방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가능 자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유통 체제 정비 홍보강화/국제박람회 참석 검역대응 기술개발 수출특화단지 지정
<위협(T)>	<위협 해결과제>	<장기 보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산과의 경쟁 중국 조경수·분재업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시장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원문화 확산과 교류 신품종 육성

2.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 전략

2.1. 기본방향

- 여건 분석에 기초하여 대중국 조경수 및 분재 수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은 “조경수와 분재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수출산업화”를 비전으로 하고 “조경수·분재의 중국 수출”을 목표로 한다. 정책과제들을 생산·유통체제 정비, 홍보, 기술개발, 문화구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대중국 조경수 수출에서 타깃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부유층 정원 또는 민간건물(호텔 등) 정원에 쓰이는 정원수가 될 것이다. 수형이 좋은 대형 특수목 시장이다. 또, 분재 수출에서는 전문 분재애호가 그룹이 대상이 될 것이다. 분재 애호가는 젊은층보다 고학력 중장년층 이상의 부유층이 될 것이다.
 - 조경수·분재 수출에서 품질의 고급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품개발과 마케팅, 생산체제 정비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 5-2. 조경수·분재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략과제(안)

비 전	“조경수·분재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수출산업화”	
목 표	“조경수·분재의 중국 수출”	
부문별 과제	생산·유통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 생산체제 확립 • 수출특화단지 조성 • 유통구조 개선 • 검역대응체제 구축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수·분재 수출가능자원 조사 •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바이어 관리 • 국제박람회 참석 • 신규시장 개척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 수출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연수 • 수출식물의 무균 인공토양 개발 • 수출식물의 세척, 포장·적재 기술 개발 • 살충제 개발 • 수목병해충 해석에 관한 기초연구 • 고유 수종의 분재소재 개발
	문화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분재 홍보 • 공항주변 수목 식재, 국제행사 분재전시 • 정원문화 교류

2.2. 실천과제

- 조경수 산업과 분재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생산·유통체제 정비, 홍보, 기술개발, 문화구축이다.
- 먼저, 생산·유통 체제 정비이다. 안정 생산체제 확립, 수출특화단지 조성, 유통구조 개선, 검역대응체제 구축이 과제이다. 수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투자해야 하며 중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수 생산자들이 보유한 수출가능 자원을 모으고 검역에 공동 대응하는 수목 수출특화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홍보 강화이다. 중국 바이어들이 원하는 수종과 규격에 부합하는 자원을 조사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홍보와 바이어 접촉을 위해 국제박람회에 참여하고, 바이어 초청 사업도 필요하다. 기존 바이어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의 분재 잡지 또는 여행 잡지에 한국 수목(분재)의 매력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다면 홍보효과가 크다. 중국이 매우 큰 시장이지만 홍콩, 베트남, 대만, 동남아 등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인 탐색도 필요하다.
- 셋째, 기술개발이다. 중국의 검역조건에 대응하면서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노하우 개발이 중요하다. 수출식물의 재배매질, 수출식물의 뿌리세척과 포장·적재 기술, 살충제, 뿌리 양생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고유 수종을 조경수 또는 분재 수출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차별화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넷째, 문화 구축이다. 한국 조경수·분재의 미(美)를 알리는 공원을 조성하고 한국의 정원문화를 홍보해야 한다. 외국인과 접촉이 높은 공항 주변에 중국인이 좋아하는 조경수를 심고 공항 내부 또는 국제행사장에 고급 분재를 진열하는 것이 방안이다. 중국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다. 국내에서 꽃과 나무를 즐기고 이해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수가 뒷받침되어야 수출도 활발해지기 때문이다.